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급 안정 지원

- 2025년 5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반적인 농식품 수급 안정을 위해 할인쿠폰 지급 및 할인행사 운영 등 물가안정 지원과 농산물 생육 점검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힘. 이는 4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조사결과,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상승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배경임(주간브리프 Vol. 18.).
- 4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한 반면, 농축산물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하여 안정세를 보임. 다만, 가공식품은 4.1%, 외식은 3.2% 상승하여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

①가공식품

- 코코아·커피 등 국제 원재료 가격과 환율, 인건비 및 공공요금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공식품 물가 상승
- 5월 1일부터 원재료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계란가공품 등 할당관세 품목을 13개 품목에서 21개 품목으로 확대함.
- 중소식품기업 대상 원재료 구매자금(4,500억 원) 및 세제·금융지원
- 식품업계 간담회, 사전 협의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최소화 및 인상시기 분산 유도

②외식

- 식재료비·인건비·임차료·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물가 상승
- 배달앱 수수료 절감을 위해 공공배달앱(땡겨요, 먹깨비 등 12개 앱)을 통한 할인 행사 추진
-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 원 할인쿠폰 지급

③축산물

- 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릿살 수요 증가 및 작년 정부 지원으로 시행한 할인 행사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가격 상승
- 국내 공급 부족분(1만 톤)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축산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 추진

④농산물

- 봄 재배 채소류 생산량 증가로 당분간 채소가격 안정화 전망, 사과·배 등 과일류는 저온피해 및 산불피해가 있었지만 수급량은 평년 수준으로 가격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의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를 통해 「밥상물가 안정」 농산물 할인지원 사업 실시
- 농산물 물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 실시
-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 의무적으로 10~20% 자체 할인을 적용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품목별로 최대 40% 할인가로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25.05.12.)
농림축산식품부(2025.05.16.)
참조

세계 경제 동향

○ 미국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 2.3%로 둔화 | 2025-05-12 미국 노동부; KBS

- 2025년 5월 12일 미국 노동부는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음. 이는 시장 예상치 2.4%를 하회하는 수치로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었음을 시사함.
 - 2021년 2월 (전년 동월 대비 1.7%)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함.
-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하였으며, 주거 및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은 점진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본격적인 가격 상승압력은 여름 이후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음.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난 4월 발효된 관세 인상 이전 계약 물량 및 재고를 소진 중이며, 소비자 가격으로의 전가는 시차를 두고 발생할 것으로 보임.
 - 가구, 자동차 부품, 오디오 기기 등 관세에 노출된 일부 품목에서 가격 상승이 관찰됨.
- 또한, 5월 12일 미-중 간 90일 상호관세 유예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음. 이번 미-중 합의는 중국 내 일자리 감소 우려 및 미국 내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일시적 대응으로 보이며, 향후 재검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24~2025년 4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전년 동월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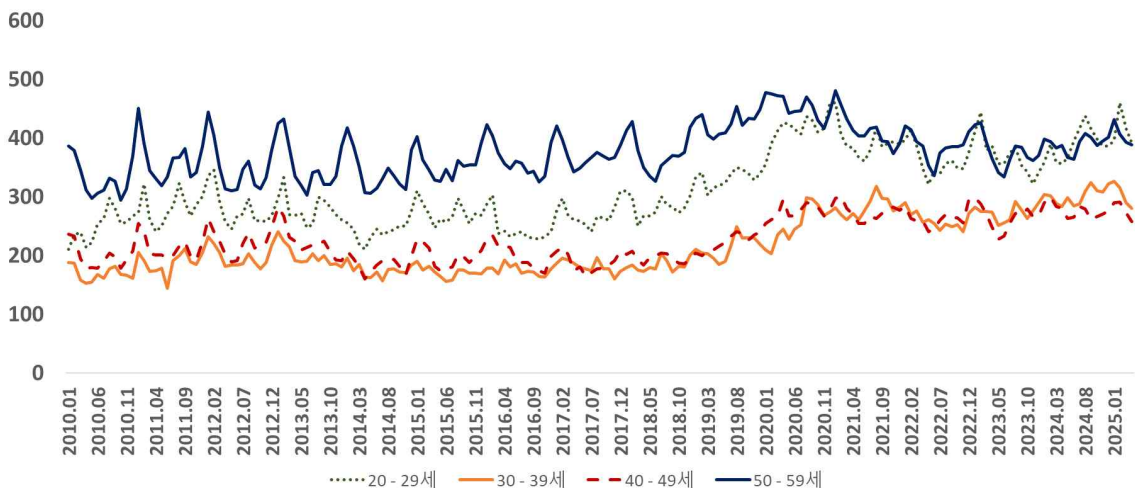


국내 경제 동향

● 2025년 4월 고용동향, 취업자 수 증가·제조업 일자리 감소 | 2025-05-14 통계청; 연합뉴스; 세계일보

- 2025년 5월 14일 통계청은 「2025년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였음.
- 15세~64세 고용률은 69.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하였는데, 이는 4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임.
 -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4만 명 증가하여,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감*은 4개월 연속 상승세
 - *고용 및 실업은 계절성이 강하여 전년 동월 대비 증감(명), 증감률을 기준으로 추세 파악
- 4월 고용자 수와 고용률 모두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고용률(전년 동월 대비)은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 취업자 수 및 2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한 부분은 우려할 점으로 판단됨.
 -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24년 4월과 비교하여 약 12만 명, 건설업 취업자 수는 약 15만 명 감소
 - 20대 취업자 수는 2024년 4월과 비교하여 약 17만 명 감소
- 전체 실업률은 2.9%로 전년 동월 대비 0.1%p 하락하였으나, 청년층 실업률은 7.3%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하였음.
- ❖ 청년층 고용동향과 관련하여, 취업자 수 감소 및 실업률의 상승뿐만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다’*고 응답한 비경제활동인구 청년층 인구의 증가도 우려할 부분임.
 -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육아, 가사, 취업 준비, 연로 등과 달리 별다른 이유 없이 쉬었다는 응답으로, 구직 포기(또는 자발적 실업상태)로 해석할 수 있음.
 - 2010년대에는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가 50-59세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29세, 40-49세, 30-39세 순이었음.
 - 2020년 이후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는 20-29세,와 50-59세 연령대의가 응답자 수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2010년대와 비교하여 2020년 이후 20-29세 인구는 감소하였고, 50-59세 인구는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다’고 응답한 20-29세 응답자 수 증가폭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10~2025년 4월 연령대별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 응답자 수 추이 ■



세계 농업·농정 동향

● 유럽연합, 탄소 농업 관련 탄소 감축 전문가 회의 진행 | 2025-05-13 European Commission

- 유럽연합(EU)은 5월 8일 탄소 농업(Carbon Farming)* 관련 탄소 감축 전문가 회의를 통해 '광물 토양의 농업 및 혼농임업**에 대한 인증 방법론 초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해당 전문가 회의의 목적은 농업 및 혼농임업에서의 탄소 감축 활동을 표준화하고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EU의 탄소감축인증제도 구축에 있음.
- 기존 탄소감축인증제도는 주로 산업 및 에너지 부문 탄소 배출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농업 및 혼농임업 부분의 탄소 감축과 토양 관리 활동을 탄소감축인증제도에 포함시킴. 특히, 토양의 탄소 저장 관련 별도의 방법론을 제시함.

*탄소 농업(Carbon Farming)이란 농경지의 탄소 저장(Carbon Stock) 능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작물의 탄소 흡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토양 내 탄소 저장량을 높이는 것과 관련됨.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식량문제에 동시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음. 탄소 농업의 탄소 격리 활동에는 피복작물 재배, 작물 잔재물 토양매립, 화학비료 사용 최소화, 무경운 농업 등이 있음.

**혼농임업(Agroforestry)은 하나의 토지에서 목재 생산,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등을 병행하는 체계를 의미

- 해당 방법론 초안의 주요 내용은 ①탄소 격리 활동 기간의 길이, ②모니터링 수준, ③토양 탄소의 기준선* 설정, ④EU 회원국의 지원 역할, ⑤탄소 농업을 위한 그룹 감사 등임.

*탄소 격리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토양에서 예상되는 저장량 의미

- 탄소 격리 활동의 기간이 짧으면 탄소 흡수량을 증명하기 어려움. 따라서 초안에서는 탄소 격리 활동 최소 기간으로 임업 활동은 30년, 토양 탄소 감축 및 저감 활동은 10년으로 제안하였고, 대안으로는 5~15년의 기간을 두고 탄소 감축인증을 갱신하는 방법 제시

- 탄소 흡수량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필지 단위 모니터링 제시

- EU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탄소 농업에 대한 인증 방법론에 대한 초안을 마무리 짓고 있는 상황이며, 탄소 감축량 측정 가능성 확보, 기존 관행을 뛰어넘는 개선, 장기적인 탄소 저장 보장, 생물 다양성 증진을 포함한 지속 가능성 기여 등에 대한 평가 요소를 충족해야 함.

국내 농업·농정 동향

- 브라질 양계장 첫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국내 가금류 공급 차질 우려 ■ 2025-05-17 연합뉴스; 로이터; 브라질 농축산부
 - 2025년 5월 15일 브라질 농축산부는 히우그란지두술주(州)의 한 상업용 육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음. 이 로 인해 브라질 농축산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사실을 교역국들에 알리고 한국, 중국, EU*에 향후 60일 동안 닭고기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힘.
 - 이는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한 첫 번째 사례
 - *한국, 중국, EU에는 기존 합의된 프로토콜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시 60일 수출 금지 조치 발동
 - 브라질은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으로,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출 일시 중단은 해당 국가들(한국, 중국, EU)의 닭고기 수급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브라질이 수출하는 닭고기 수출량은 전 세계 닭고기 무역량의 약 35% 수준
 - 국내 유통되는 냉동 닭고기의 대부분은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있음. 따라서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금지 조치에 대응한 대체 수입처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 2024년 한국 전체 닭고기 수입량 5.1만 톤 중 브라질산 닭고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88%(4.5만 톤) 수준